

시론

“국민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 지도자 가치가 결정”



오 주 섭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지역구 득표율 차 불과 5.4%p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아권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국민들은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지역구 투표에선 더불어민주당에 50.45%, 국민의힘에 45.06%의 표를 줬다. 양당의 득표율 차는 5.4%p에 불과하다. 이는 민주당에 대한 전체 심리도 상당하다는 방증(傍證)이다.

교병필패(驍兵必敗)

정치지도자들은 “강함이나 승리를 믿고 교만한 병사나 군대는 반드시 패한다”는 교병필패(驍兵必敗)라는 말을 항상 가슴에 새겨야 한다. 교병필패의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승리하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상대의 능력을 알잡아보기 때문이다. 민심의 바다는 배를 항해하게 할 수도 있고, 거센 폭풍으로 변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말을 이번 선거 후에도 많은 이들이 말하고 있지 않은가? 누구든지 자만심에 빠져 일방통행식 정치를 하면 언제라도 국민들의 마음이 바뀔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독선과 아집의 카리스마가 지배하는 사회 카리스마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들

매료시키고 영향을 끼치는 능력이나 자질”이다. 특히 역동하는 대한민국에서 정치지도자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선 아주 중요한 자질로 여겨지며, 흔히 강한 추진력과 독심 있는 사람을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카리스마를 규정하는 ‘추진력과 독심’이 ‘독선과 아집’으로 변질돼 버렸다. 요즘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의 행보를 보면 백작간두(百尺竿頭)에 선 사람처럼 아슬아슬하다. 카리스마가 아니라 언제든 휘둘러 줄 수 있는 ‘칼(刀) 있으마’라고 내보이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지도자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1987년 한국인 권문제연구소 소식이 ‘행동하는 양심’으로 “나는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의 신조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지도자라는 사람의 가치가 도대체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 점이다. 위대한 지도자는 바로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권력을 잡고 있었느냐, 또는 얼마나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국민을 대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 나라 국민을 존경하고 사랑했느냐,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올바른 방향과 정책들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올바른 방향과 정책들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즉 어느 정도로 충실하게, 진심으로 국민을 대했으며 봉사했느냐, 그

실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존경심에 바탕을 둔 원칙중심의 지도력 필요

코비리더십 센터의 창립자이자 부회장이인 블레인리는 그가 쓴 지도력의 원칙(The Power Principle)에서 지도력을 3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째, 독재자들이 사용했던 ‘강압적 지도력’. 둘째, 어떤 혜택이나 이익이 있을 때만 관계를 유지하는 ‘실리적 지도력’. 셋째, 존경심에 바탕을 둔 ‘원칙중심의 지도력’이다. 5·18광주민중항쟁과 1987년 민주화대투쟁 이후 직선제 개헌과 30여 년의 지방자치제를 경험하면서 축적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역량은 ‘원칙중심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민주국가의 정치지도자는 국민과 철저히 소통하면서 민주적 과정을 통해 중요 사안을 결정하고, 협상과 타협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국민에 대한 존경과 애정이 정치의 기본 이념이자 신조

정치지도자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하신 다음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한다. “나는 국민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정치의 기본 이념과 신조로 삼고 있다. 나는 국민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거나 국민에게 자비심을 베푸는 것과 같은 정치 자세를 경멸하며, 또한 중요한다. 국민을 경애(敬愛)하는 마음이야말로 나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결정짓게 했으며 나의 정치적인 방향을 설정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난장

나의 첫사랑, 진도에 다시 돌아와



하 숙 자

진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진도로 귀환했다. 30여년이 훌쩍 넘는 세월이 흐른 뒤다. 진도는 필자에겐 본적지다. 아직 친·인척들이 살고 있다. 해서 부모님은 진도로 발령나길 기대했다. 그런 바람에 힘입어 진도로 첫 교직 발령이 났고 교직에서의 첫 사랑이 시작됐다. 우리네 농산어촌이 그러했듯 1900년 진도는 무던히도 가난했다. 가장 방목 댄 학생들의 집을 찾아 마을 마을을 방문했다. 버스로 무려 두시간 걸려 가기도 했다. 한 반에 30~40명이 넘는 학생의 집을 3~4일 동안 해결하는 날이 일요일엔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가정방문을 지출했다.

1900년 당시 진도살고엔 농업과, 축산과, 상업과가 있었다. 상업과 아이들은 매우 우수했고 영리했다. 집안 형편상 취업을 해야 하는 관계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왔기 때문이다. 농·축산과는 사정이 조금 달랐다. 이들은 늘 일상의 탈출구를 찾았다. 교사들은 대부분 신규였기에 학생들과의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다. 특히 농·축산과에서 미혼

여성교사들의 수업시간은 늘상 전정터를 방불케 했다.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 보리라는 다짐은 아이들과 실랑이를 벌인 후 물거품이 되곤 했다.

신규교사 멘토링제도 없었던 지라 필자와 동료들은 자취방에서 서로를 다독이며 위로했고 술이라도 한 잔 들어갈라치면 “민주주의여 만세”를 부르며 객기 부리며 다소나마 잊곤 했다. 각자 자취방 부엌은 동료들의 눈물만큼 빈 술병으로 가득 메워져 갔다. 젊은 교사들은 시간이 지나면 별 미련없이 진도를 떠나갔다. 필자도 마찬가지였다.

교직 중반기에 진도 조도고등학교에 근무를 자청했다. 아이들이 버거워 손을 놓고 떠났던 진도살고 첫 사랑들에게 주지 못했던 교사로서의 책무감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서었다. 훌륭한 선생님은 되지 못하더라도 아이들의 대학진학에 도움을 주는 교사가 되고 싶었다. 그렇게 찾아가던 조도의 아이들은 너무 훌륭했다. 오히려 필자가 치유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신이 건강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력이 뛰어났다. 게다가 헌신적인 담임선생님을 비롯해 모든 선생님들이 밤낮으로 케어한 결과, 14명의 모든 아이들이 서울·광주 국립대를 포함해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적격 합격해 진학했다. 도망치듯 떠나왔던 미안함과 마음 속의 짐을 다소나마 털어낼 수 있었다. 하여 이듬해 가벼운 마음으로 진도를 떠났다.

그리고 24년도 봄, 다시 진도로 돌아왔

다. 아직도 가슴에 각인된 진도살고 첫사랑들은 이제 이곳 진도에 뿌리를 내렸고 몇 년 중년들이 되어 있었다.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 준 것 없는 미숙한 교사였는데도 그들은 선생님이 왔다고 대대적인 환영 파티를 해주었다. 부끄러웠다. 상처의 치유는 다른 것으로 대체되지 않는 모양이다. 짧은 시절 도망치듯 부러부러 떠났다가 조도고등학교에서 조금이라도 치유받았다고 여겼던 필자의 생각은 자기방어고 변명일 뿐 수 있었다.

진도에 사립학교가 많다.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중·고등학교는 대부분 사립이다. 그 이유가 뭤까. 섬이지만 교육열이 높는데다 성격도 급했던 진도사람들은 국가에서 해결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역민들이 뜻을 모아 학교를 세워 후진들을 배우게 하여 인재를 성장시키게 했기 때문이다. 교육은 지역 발전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다시 마주한 진도.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해본다. 진도 교육이 처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현실에 맞게 풀어야 할 것인지를 구상해야 한다. 지역이 위축되고 소멸되어가는 이 때 교육을 통해 지역문제를 풀어나갈 토대를 다져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지역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각단계 계획을 짤 것이다. 더 이상 진도에 미안한 마음을 가져선 안 되기에...

독자투고

대학 동문회 사칭 피싱 사기 ‘기승’ 주의해야



최 휘 호

최근 “동문록 업데이트 중입니다...회사 주소 알려주세요.” 이처럼 대학 동문록을 만든다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기전화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 내용은 전화로 “동문록을 업데이트한다며 직장 및 개인정보를 요구” 한다던가 “입사하게 된 회사와 부서 등을 자세히 묻는 전화” 등 내용들이다.

일부 동문은 ‘동문록을 발송할 데니 5만원을 입금하라’는 독촉전화를 받기도 했다. 사기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사례는 서울 모 대학 뿐만 아니라, 전남지역의 B대학을 졸업한 C씨도 “동문 주소록을 업데이트한다고 해서 취업정보 및 개인정보를 말해줬고 추후 피싱사기로 의심되는 전화가 꽤 걸려왔다”며 “동문회 사칭 전화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 대학은 개인정보 유출 등을 문제삼아 동문록을 만들지 않고 있다. 전화의 대부분이 사기전화 혹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일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피해의

심 사례가 발생한 광주, 전남·북 대학 역시 2004년 이후 동문록을 발간한 적이 없다. 동문 정보는 현책방, 웹페이지 등에도 쉽게 노출돼 있다.

인터넷 검색 창에 각종 대학과 동문회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주소록이 뜨는 경우가 많다. 현책방 등에서도 개인정보가 담긴 동문록을 별도의 증명 절차 없이 매입할 수 있다. 동문사칭 사기를 예방하려면 현책방 등을 통해 동문록을 입수한 뒤 보이스피싱을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항상 주의해야 하고 아예 그런 자체 전화 통화는 끊어야 가능할 수 있다. <함평경찰서 월아파출소장>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군 공항 소음영향 미미’ 무안군이 이전 이전 선택해야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시 소음 영향권이 무안군 전체(450.4km)의 4.2%로 확인됐다. 광주시, 전남도, 국방부, 지방시대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무안국제공항이 위치한 망운면(5.8km), 운남면(12.3km), 현경면(0.9km) 등 19.0km 규모로 제시된 것이다. 이는 현재 군 공항 40.21km의 절반 수준이며 해안에 위치한 입지 덕분으로 분석됐다.

광주연구원에 따르면 군 공항 면적은 군부대 11.7km(353만평), 소음 완충지역 3.6km(110만평)를 포함한 15.3km(463만평)에 이른다. 무안에 들어선다면 민간 공항 활주로에서 1.9km 떨어진 지점이 최적으로 꼽혔다. 독립 평행 활주로 최소 간격을 1.31km로 규정된 미국연방항공청(FAA) 시설 기준에도 들어맞고 해안 매립을 최소화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어서다. 또 내륙이 아닌 서쪽 해안 위주 비행으로 소음을 줄이는데도 효과적이다.

광주연구원은 현재의 광주(8.2km) 부지보다 1.4배 넓게 군 공항을 건설하고, 소음 완충지역에

85%를 이상이 예상되는 5.7km 토지까지 추가 보상을 통해 포함하도록 제안했다. 85%를 광주 소음 기준에서 가장 낮은 제3종(보상액 월 3만 원) 구역의 수치지다.

토론회에서 통합공항 입지와 시설 배치안이 공개됐다. 특히 핵심적인 소음 피해는 미미했다. 무안은 군사 작전과 장소 적합성이 우수하며, 군내 9개 읍·면 중 6곳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분석이 도출됐다. 여기에 광주시는 1조원 개발사업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또 국가계획에는 무안국제공항을 광주공항과 통합해 서남권 거점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대로면 무안은 공항 복합도시로 위상을 높이고 시 승격을 위한 중대한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 부지 선정 이후 건설에 최소 9년이 걸린다. 기다릴 시간이 별로 없다. 무안 주민의 현명한 판단을 위해 공론화의 장이 확대돼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의 미래 발전을 위한 상생 사업이다. 대승적 결정이 요구되고 있다.

개통 20년 광주시민의 자람이 된 도시철도

2004년 4월28일 광주 지하철 1호선이 녹동역부터 상무역까지 운영을 시작했다. 2008년 4월11일에는 평동역까지 20개 역 20.5km 구간이 완전 개통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20년, 신속하고 안전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동안 운행 거리는 약 3천144km로 지구 752바퀴다. 누적 이용객은 3억2천600만명에 달한다. 현재는 일 4만6천800여명이다. 2019년 5만3천여 명까지 늘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했다. 특히 아침 8~9시 출근 시간 승객이 전체 이용 인원의 9.4%, 오후 6~7시 퇴근 시간이 8.6%를 차지했다. 하루에 8만4천789명이 물리는 기록도 세웠다. 광주에 30cm 넘는 폭설이 내렸던 2022년 12월23일이다.

최다 탑승지는 KTX 역사인 광주승정역으로 일 평균 4천746명이며 금요일이 가장 많다. 시민의 발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앞으로 이용객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시청역에서 광주역까지 서구와 동구를 잇는 2호선 1단계 구간은 2026년 12월, 광주역에서 시청역까지 북구와 광산구

를 연결하는 2단계는 2029년 말 개통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도심과 구도심, 주요 생활권을 30분 대로 단축하는 순환형 노선으로 선진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된다. 도시철도 중심의 간선망을 구축하고 시내버스 환승을 통해 외곽을 연결하는 광주의 대중교통 체계에 속도가 붙었다.

20주년을 맞아 상무역에서 노사 공동 대중교통 활성화 캠페인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져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사 앞 광장에서 20년 전 개통 당시 썼던 전통차 열쇠, 현재 직원들의 명함, 미래의 후배에게 전하는 손 편지 등을 타임캡슐에 담아 봉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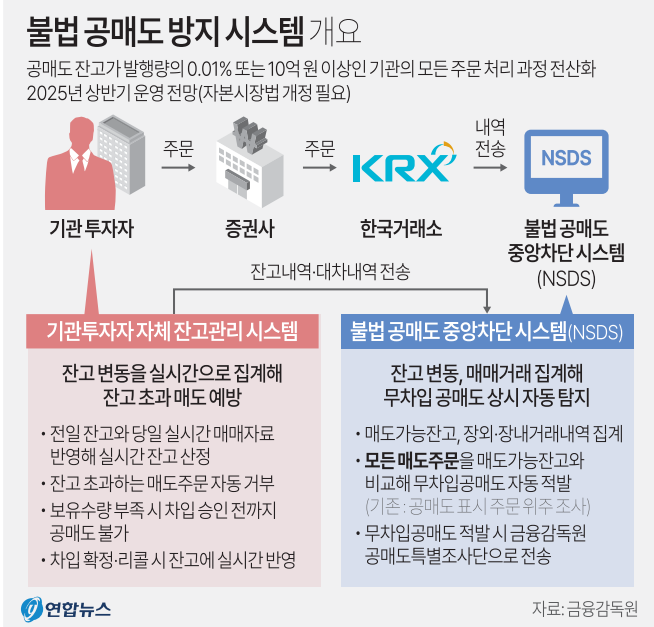
도시철도공사는 교통공사로 새롭게 출범해 대중교통 전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0년 연속 행안부 우수기관 선정 등 경영 평가도 우수하다. 시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에 없애선 안될 도시철도는 더 한해 달릴 것이다. 요금도 저렴하고 정시성에 신속성, 대량수송이 가능한데다 장애인, 노약자, 학생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미래 교통수단이다. 광주의 자람이 되고 있다.

그래픽 뉴스

불법 공매도 이증으로 막는다...기관 잔고확인·중앙서 재검증

금융당국이 기관 투자자의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과 공동으로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을 열고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화 방안 공개했다. 금융당국은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실시간 차단’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구조상 투자자의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현실화하더라도 거래 속도를 현재의 5배 이상으로 지연한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대신 당국은 공매도 잔고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외국계 2개·국내 7개사)의 모든 주문 처리 과정을 전산화하기로 했다. 먼저 기관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잔고 변동을 실시간으로 집계하는 자체 시스템을 도입해 잔고를 초과해 매도하는 행위를 예방한다. 기관의 주문이 이뤄지고 나면 한국거래소에 구축된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가 모든 주문을 재검증한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650-2016
정치부 650-2030 사진실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편집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0원